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普通學校의 入學難
敎育의根本的方針을 樹立하라

一

學年末이 되어 벌서부터 入學難의 소리가 들리게되엿다. 京城府內의 普校入學志願者總數가 再昨六日 全朝鮮에 으뜸으로 綜合되엇는데 이것도 벌서 收容人員 四千四百에 志願者 八千餘名이란 約倍의 數字를 示하엿다. 地方에 따라 入學率의 高低는 잇스나 大體로 志願者가 收容人員의 倍가 넘는다는것은 年來의 入學狀況을 보아 알수잇다. 年年 普通學校는 늘어가고 普通學校를 補充할 簡易學校도 相當히 設立되것만 어찌 年年 이가튼 比例의 入學難을 보는가. 참으로 天眞爛漫한 어린兒童의 事情을 생각하야 憐憫의 情을 不禁하겟다.

二

當局의 普通敎育에 對한 急速한 擴充의 不可能論의 根據는 主로 財政難에 잇다. 그러나 現在의 倍以上의 收容人員을 가질만한 施設을 하라면 現在의 財政狀態로도 넉넉하다. 보라. 現在(昭和九年 五月末現在)朝鮮에 設立된 公立普通學校數는 二千百二十八, 收容人員 六十萬五千人, 經常費 一千二百五十四萬九千餘圓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倍以上의 收容人員을 가지랴면 年一千二百萬圓을 쓰면 그만일지니 一千二百萬圓은 年千五百萬圓의 加俸을 廢止해도 남는것이다. 一時에 新校舍를 多數建築하라면 臨時費가 만히 걸린다 할지 모르나 그러나 初年度에 一校에 一時로 數十學級을 建築할것이 아니오 二學級乃至 數學級 建築하면 그뿐일지니, 이제 一學級 建築費를 一千二百圓으로 잡고 一學校 平均 二學級을 建築한다면 基地갑(一坪平均一圓에 三千坪으로잡고)과 合하야 一校에 大約 五千四百圓으로 될지오, 二千百校를 세운다면 一千萬三十四萬圓밧게 안된다. 이에 一學級 平均經常費 一千三百圓을 節約하야 千圓으로하고 四千二百學級에 쓸 經費를 四百二十萬圓으로 잡으면 初年度에 들 經費는 一千四百五十餘萬圓을 不越할지니 加俸의 撤廢로 넉넉할수잇지 안흔가.

三

勿論 以上의 經費는 多少 줄잡아 計算하얏스나 校舍를 그다지 華麗하게 할 必要도 업고 建築工事에 잇서서 監督을 徹底히하면 現在와 가튼 高價의 建築費를 안가지고 可能하다. 그리고 次年度以後의 經費에 對해서도 財源을 求하라면 얼마던지 잇나니 第三所得稅를 累進賦課하야 그中에서 얼마를 敎育費에 還元케하며, 私鐵 其他 個人企業에의 補助를 節約乃至 廢止하며 恩給費, 機密費, 警察費를 節約하며 國營事業의 利益을 이에 充當하면 넉넉할것이다. 日本內地서나 朝鮮서나 日本內地人의 學齡兒童中 그거이 全部가 小學校에 就學하는데 朝鮮서는 志願者를 다 收容한대도 學齡兒童의 半도 차지 못하는 現狀을 그대로 默過한다는것은 當局의 無誠意를 말한다 批難해도 辯明할 餘地가 업슬것이다.

四

普通敎育十個年擴充計劃은 昭和十二年으로부터 十年間에 七十萬의 兒童을 收容하야 全學齡兒童의 五割을 收容한다하지만 이것은 全然히 數字에 끌리어 實을 無視한 感이 잇스니 二年制의 簡易學校나 四年制의 普通學校가 公民된 資格을 길러내기 하는것은 疑問이다. 試하야 現在 農村에 設立된 簡易學校의 內容, 設備를 보고 그 兒童들의 受業狀況을 보면 얼마나 幼稚한 程度인가를 알수잇다.

그러므로 當局은 現下의 時急한 初等敎育問題를 解決함에 姑息的 方針을 버리고 一, 二年間에 志願者를 全部 收容할 計畫을 세우고 그다음엔 義務敎育制를 써서 萬人이 다 普通學校를 卒業할수잇도록 方針을 세워야할것이다.

로카르노條約破棄코
獨逸라인란트로進軍
非武裝地帶는正規軍에게占據
佛獨兩國軋轢再激化?

【파리七日發同盟】 힛틀러總統은 로카르노條約破棄를 各國政府에 通達함과 同時에 獨逸國軍의 大部는 七日早朝 隊伍堂堂라인란트에 進軍하엿다 世界大戰以來 十餘年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及 第四十三條의 明文下에 所謂非武裝地帶로되여 正規軍을 보지못하엿든 라인란트에도再次獨逸國旗가 飜飜하기에至하엿다

【伯林七日發電通至急報】 伯林駐在各國大公使는 本日正午獨逸은 라인란드의 占據를 實施할것及 이와同時에 聯盟에復歸할意圖를 有한 旨의通告를受하엿다

卒業生을 생각하고 (七)
李光洙

다움에 훌륭한 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재로는 善惡正邪를 똑바로 辨別하는 理性과 거기 따르는 모든 情操 情緖와 및 環境의 刺戟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意志다. 一言以蔽之하면 感情의 支配를 밧지아니하는 마음, 또는 環境如何를 따라서 흔들리지아니하는 人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支配者가 되는 人格이다. 富貴不能淫, 威武不能屈이라고 한것이 이러한 人格을 가르친말이다. 利害, 苦樂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者는 主義의 人은 못 되는것이다.

비록 自己가 正當하다고 判斷하야 무엇을 一生의 目標로 세워더라도 害가 오면 말고 苦가오면말고, 世上이 歡迎하면신이나고 冷待하면 落心하고, 이러한 人格으로는 志士의生活은 못할뿐더러 아모러한 일에도 成功者는 되지못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人格은 나면서 타고나는것도 아니오 一朝一夕의 決心만으로 되는것도아니오 實로 久遠한 修養으로 끄님업는, 그리고 오랜 鍛鍊으로만 일우어지는것이다. 언제 큰일을 한 人物은 다 이러한 鍛鍊을 한것을 偉人의 傳記를보아서 아는것이다.

商業의 成功에 信用의 資本이 첫재요 金錢의 資本이 둘재인것은 누구나 아는일이어니와 이 商業信用이라는것도 決코 저절로 오는것이아니라 害와 代價를 주고 사는것이다. 웨 그런고하면 害가 될 境遇에도 그 害를 무릅쓰고 말한대로지키는 곳에서 信用이 생기는것이아닌가. 利로울 때에만, 또는 害가 업는 때에만, 제게 便할 때에만 信用을 지키다가 害만 잇스면 물러선다 하면 무슨信用이라 하랴.

하물며 同志에 對한 信用이나 民衆에 對한 信用이랴. 제게 便한 때에는 義人의 일을 하고 志士의 일을 하다가 害가 올 때에 苦가 올때에 움지려지거나 또는 [illegible]으로 辯明을 할 때에 무슨 信用이 잇스랴. 民衆은 저를 爲하야 犧牲하는者를 尊敬하고 信賴하는것이다. 機會主義者나 입에 꿀 발르는 詐面한者에게 一時 속는일이 잇다 하더라도 民衆은 반다시 그런 小人에게 對하야 正當한 判斷을 나리고야 마는것이다. 그럼으로 社會를 爲하야 民衆을 爲하야 무슨 事業을 하랴는者는 먼저 直하고 誠하야 利害, 苦樂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人格을 準備하지 아니하고는 아니될것이다. 直이라 함은 거짓이 업슴이오 誠이라 함은 眞心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야서 한다는 말이다. (未完)

(備考 第六回分은 四日附朝刊에 揭載)

獨總統覺書內容

【伯林七日發電通至急報】 七日 힛틀러總統으로부터 로카르노條約條印國인 英佛伊白大公使에게 手交한 覺書內容은 左와如함

獨逸政府는 獨逸에 隣接한 東西歐洲各國(리트와니아를 含함)과사이에 不侵略條約의 締結을 提議하는것이다 獨逸은 라인란트 非武裝地帶에關한 一方的條項에代하야 새로 佛國及白耳義兩國政府와 協議를 行하야 獨逸、佛國間獨逸、白耳義間에 各各獨逸、白耳義兩國間에 希望에依하야 非武裝地帶를 設置할 意思가잇다

陸軍側과協議한後
銳意組閣에努力
一部人選變更코軍의諒解要求
新內閣修正閣僚面貌

【東京電話同盟】 軍部의 反對로 流產을 傳하든 廣田內閣의 組閣은 七日朝의 廣田、寺內會見으로 漸次前進되여 一縷의 光明을 發見하게되엿스므로 組閣本部는 俄然活氣를 呈하야 陸軍의 意向을 參하야 組閣準備에 邁進하고잇는데 入閣交涉을 바든 下村宏氏는 時局의 推移에 鑑하야 自發的으로 辭退를 申請하게되어 이것을 諒承하고 問題되여잇는 吉田茂氏(外務大臣) 小原直氏(司法大臣)에 關하여는 兩氏가모다 國家를 爲하야 組閣을 急히할 必要가 잇다하야 廣田氏에게 辭退를 申請하게되엿는데 廣田氏로서는 될수잇는대로 陸軍側의 諒解를 求하야 入閣식히기에 努力하고 잇스나 軍部의 態度가 强硬함으로 右兩氏의入閣은 至難視되여잇다 그 外問題되여잇는것은 川崎卓吉氏의 內務大臣인데 이것은 個人에對한 反對가아니라 政黨에 內相의 椅子를 與하는데 反對하는것이며 그리고 永田秀次郞氏도 椅子問題가잇슴으로 다른자리로轉하야 入閣하게되여잇다 如斯히 組閣은 遲遲하나 漸次 進捗되여 七日午後六時부터 廣田氏를 中心으로 寺內、永田、川崎、馬場、藤沼의諸氏가 參集하야 具體的對策을 協議하야 八日早朝에 閣員을 決定하고 寺內大將에 提示하야 陸軍의 承認을 어드면 一擧閣員을 決定하고 廣田氏는 參內하야 閣員名簿를 捧呈하야 宮中의 御形便을 仰問하야 同日中에라도 親任式을 擧行할意氣로 組閣工作을 進步하고잇다

張外交部長
有田大使께答禮

【南京六日發同盟】 有田新駐中大使는 六日 國書捧呈後 隨員과함께 政府主席 林森氏의 午餐會에 臨한後 午後二時 大使館에 歸還하엿다 外交部長 張群氏는 同三時半 有田大使를 官邸에 訪問하고 答禮를하는 同時에 同夜에는 張氏로부터 外交大路에 夫人同伴의 大使一行을 招待하야 盛大한 演奏會를 開催하엿다 그리고 有田大使는 七日午前十一時 中山陵에 參拜하고 花環을 드릴터이다

佛駐日大使更迭

【巴里六日發同盟】 佛國政府는 東京駐箚大使 피라氏가 近近引退함에 伴하야 現앙가라駐箚大使 갑메레르氏를 東京駐箚大使로任命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軍部反對察知코
小原法相辭退를申請

【東京電話同盟】 小原法相은 廣田新內閣의 法相으로 留任하라는 勸告를 바덧스므로 考慮한結果 이를 受諾하엿스나 軍部方面에서 國體明徵에 關하여 優柔不斷의 態度를取한 小原法相의 留任은 滋味업다는意見이 나왓다 따라서小原法相은 六日午後 組閣本部에 廣田氏를訪問하고 나의 留任이 新內閣成立을阻害함과가튼일이잇스면 이것은나의本意가아니므로 깨끗이辭退한다는 旨를말하엿슴으로 廣田氏는 이를抑制하고 『問題의解決은 나에게 一任해주기바란다』라고 言明하엿슴으로 小原法相의留任問題는 依然히 組閣阻害의一原因으로 橫在하엿든데 小原法相이 留任치안흘境遇에는 그後任으로 貴族院方面에서 司法行政의 知識을 가지지아니한 로보트人物을 選擇할傾勢가 보이므로 司法部는 他의行政省과달라서 司法權의獨立維保를 本務로하는바이므로 如斯한 措處에 對해서는 絶對反對이라고 少壯判檢事間에는 今回의 組閣은他境遇와달라 時局重大한 때이므로 治安維持의本源이되는 司法權擁護의 立場에서 어떠한 意思表示를 行할 必要가 잇다는意見이 擡頭하고잇다

(寫眞은小原法相)

共軍의進擊으로 太原危局에直面
中央에援軍派遣要請

【上海七日發同盟】 共軍의 進擊으로 太原이 危急에瀕하엿기때문에 閻錫山氏는 中央援軍의派遣을 要求하야 蔣介石氏는 六日午前 [illegible] 十三人委員會의 示唆案 [illegible] 分하야 共軍討伐에 進出하기로 決定하야 六日 이에對하야 [illegible] 出動을 命하엿다

佛伊秘密交涉

【巴里六日發同盟】 羅馬駐箚佛國大使 샹브룬伯은 五日午後 베네치아宮에 무솔리니首相을 訪問하고 十三人委員會의 示唆案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또 巴里駐箚 伊太利大使 체루티氏는 六日午前 佛國外務省에 플랑당外相을 訪問하고 時局에 關하야 密議를 遂하엿다 密議의 內容에 關해서는 佛國外務當局도 絶對 秘密을 嚴守하고잇는데 伊太利政府에서는 大體 和平示唆案 受諾에 傾한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但 示唆案이 『聯盟規約의 精神에 基하야 戰鬪行爲를 停止하라』고 唱道하고잇는 事實에 基하야 伊太利政府에서는 此際에 規約第十九條에 基하야 『世界平和를危殆케할 國際狀態의 再審議』를 要求하야 植民地의 資源再分割의 主張을 貫徹할意圖가 아닌가 생각된다 勿論 伊太利政府가 和平示唆案을 拒否할 境遇에는 制裁十三人委員會는 石油斷交案을 決定할것은 必至라고 解釋된다 佛伊兩國間의 交涉은 秘密을 極히하고잇다

平和勸告案
佛政府承認

【巴里六日發同盟】 佛國政府는六日午前 에리제宮에 國務會議를 開催하고 플랑당外相으로부터 주네브의 討議經過를 聽取한後 플랑당外相의 提案에 基하야 十三人委員會의 平和勸告案을 全員一致 承認하엿다

소포리스氏에게
希臘組閣下命

【아데네七日發電通】 希臘國王 조-지陛下는 베니젤로스派의 首領 소포-리스氏에 對하야 組閣의 大命을 發하엿다

新任法相에
林大審院長推薦

【東京電話同盟】 小原法相은 廣田新內閣의 法相으로서 留任하기를 受諾햇는데 陸軍側으로부터 國體明徵問題에 關하야 毅然한 處置를 取하지 안한것과 廣田內閣의 閣僚의 一員으로서 引責辭職지안한것은 不當한것이라는 二點을理由로하야 干涉하엿슴으로 自己의 留任이 後繼內閣의 成立을 阻害할것가트면 안되겟다는 責任感으로 留任辭退의 決意를하고 七日午後六時 司法大臣官邸에 林大審院長 光行檢事總長을 招致하고 協議한結果 法相後任으로서 大審院長 林賴三郞氏를 推薦하기로 決定햇다 따라서 陸軍側의 態度를 緩和하지안는限 小原法相의 辭任과 林大審院長의 法相就任은 確定的이다 그리고 林大審院長의 後任에는 同院民事第一部長 池田寅二郞博士가 補職되기로 決定되엿다

二月末現在國債額

【東京電話電通】 大藏發表 二月末現在에잇서 國債額은 左如하다 (單位千圓)

內國債	八、二〇九、九八四
外國債	一、三三一、八六一
合計	九、五四一、八四六
外에 米穀證券	四四一、〇八三

獨逸政府
로카르노條約破棄를
舊聯盟國에通告
◇…新條約締結交涉에應할것과
聯盟復歸意思도表明

【伯林七日發同盟】 獨逸外相 노이라-트男은 七日 午前十一時 伯林駐箚 英、佛、伊三國大使를 外務省에 招致하고 獨逸政府는 로카르노條約을 破棄한다는 旨의 正式通牒을 手交하엿다 右通牒要旨는 左와 如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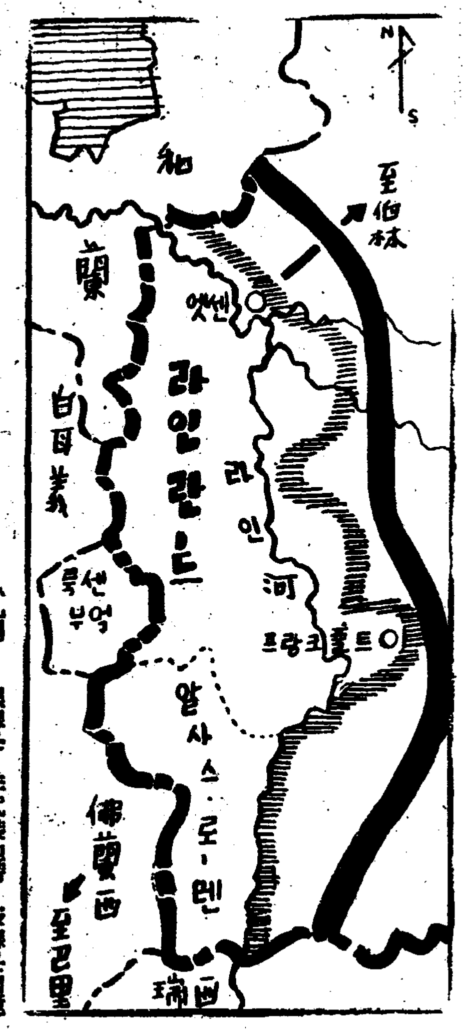
一、國際情勢의 變化에 應하야 獨逸政府는 로카르노條約을破棄함
一、但―安全保障에關한 佛、白兩國政府의 要請에對하여는充分考慮할 意思가有함
一、로카르노條約에 代할 新條約締結에 對하야 各國政府와의 交涉에 應할것이다
一、新條約의 締結과함께 獨逸政府는 一定한 條件下에 國際聯盟에 復歸할 意思가有함

國防相等은反對

【伯林七日發同盟】 『힛틀러』總統은 『라인란트』非武裝條項廢棄를斷行하기前에 六日夜『윌헬름』街의 總統官邸에 國防相『폰・브롬베르크』將軍以下 獨逸國軍의 將星을 招致하야 重要한 協議를하엿다 그席上에서 國軍의首腦는『라인란트』非武裝條項을廢棄한結果 英國、佛蘭西、白耳義各國政府와의 사이에 重大軍事的衝突을 惹起할念慮가잇슬것을指摘하야 獨逸國軍의 現狀에 잇서서는 到底히 그와가튼危險을무릅쓸實力이 업슴을 强調하야『힛틀러』總統의 自重을要請한듯하다 그런데『힛트러』總統은 佛蘭西、蘇聯 兩國政府가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야『로카르노』條約의 精神을 沒却한 以上 獨逸政府에서도『라인란트』를 非武裝한채로 放置할수업다는것을 指摘하야『로카르노』條約破棄의 重大裁斷을 내린것이라고觀測된다

라인란트侵入說
獨陸軍省否定

【伯林七日發同盟】 獨逸軍이『라인란트』非武裝地帶에 侵入하엿다는 報導에 關하야 獨逸陸軍省、宣傳省當局은 모다 否定하고 그러한事實은 업다고 言明하엿다



獨逸軍에게占據된라인란트 (凡例……黑線은 非武裝地帶 斜線은國境 點線은休戰當時 聯合軍의占據地域)

佛政府極度唐慌
緊急閣議開催

【巴里七日發電通】 獨逸政府의 라인란트 武裝占據에 關한 爆彈通達을바든 佛蘭西政府에서는 그對策을 考究키爲하야 七日午前九時四十五分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사로-首相、플랑당外相、봉쿠르 無任所相、모-란陸相、만데르-遞相 其他 陸軍省專門委員數名이 參集하야 長時間동안 重要協議를 하엿다

伊政府閣議
勸告諾否決定

【羅馬七日發電通】 伊太利政府의 閣議는 七日午前十時부터 뭇솔리니首相司會下에 이데나-레宮에서 開會하엿는데 右閣議에서는 聯盟委員會의 伊에停戰勸告의 受諾如何에 對하야 協議하리라고 觀測되여 多大한 注目을 끌고잇다

下村氏入閣辭退

【東京電話電通】 入閣키로 內定되엿든 下村宏氏는 六日夜深更 [illegible]

軍部要求容認해도
內部工作이問題

【東京電話電通】 廣田外相이 軍部의 眞意에 對하여 誠意를示한데 對하야 軍部도 多少 그態度를 緩和한바잇서 七日午前의 廣田、寺內兩氏會見에서는 廣田外相의 誠意披瀝、寺內大將의 好意的態度로서 爲先 妥協的氣分裡에 會見을 終한것이다 이로서 停頓된 組閣事務는 光明 [illegible] 田外相으로서는 軍部가 [illegible] 義、退嬰主義、消極主義 [illegible] 避하고 吉田大使의 外相 [illegible] 下村宏、永田秀次郞兩氏의 入閣取消、小原法相留任의 自發的辭退로서 軍部가 願하는 要求에 따라 이에 代할 他人物로서하고 川崎卓吉氏의 內相椅子도他에 變更하려는것이며 果然 이 內部工作이 잘될는지 아직 남은疑問이라고 할수잇다 [illegible]

【東京電話電通】 七日午後十時現在新內閣은 左와如하다

內閣總理大臣	廣田弘毅
外務大臣	吉田茂 又는 有田八郞
內務大臣	未定
大藏大臣	馬場鍈一
陸軍大臣	寺內壽一
海軍大臣	永野修身
司法大臣	小原直 又는 林賴三郞
文部大臣	永田秀次郞
農林大臣	前田米藏
商工大臣	堀切善兵衛 又는 島田俊雄
遞信大臣	頼母木桂吉
鐵道大臣	川崎卓吉
拓務大臣	岡部長景
內閣書記官長	藤沼庄平
法制局長官	大橋八郞
調査局長官	吉田茂
警視總監	未定

海軍專門委員會
最後難關突破
◇…主力艦制限案에對하야
四個國意見完全一致

【倫敦六日發同盟】 海軍技術專門委員會는 六日午後三時十五分 英米佛伊四個國委員出席下에 會議場 란카스터하우스에서 開會前後三時間에 亘하야 質的制限案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最後의 難關인 主力艦制限案에 關하야 完全히 意見이 一致되엇다 委員會의 決定事項은 如左하다

一、主力艦制限
一、主力艦單艦噸數를 三萬五千噸 備砲口徑을 十四吋으로함
一、主力艦에 關한 規定은 四個年暫定規定으로하고 一九四〇年 다시 關係國이 協議키로함
一、但 華府條約 締約國全部가 一九三七年一月一日까지에 右條項을 受諾치안흘 境遇에는 備砲口徑을 十六吋으로함

▲建艦禁止範圍
八千噸으로부터 一萬七千噸까지의 艦艇은 建艦을 禁止함

▲新條約期限
主力艦에 關한 條項을 除하고 一九三七年三月一日부터 一九四二年 十二月三十一日까지 有效함

以上의 決定으로 質的制限案은 完全히 成立되엇스므로 起草分科委員會는 七日 條約草案의起草를 了할터이다 免除條項에 關해서는 英國代表 몬셀海相은 左의 私案을 提示하엿다

一、戰爭勃發의境遇
一、締約國이 條約에 違反한境遇
一、非締約國이 條約에 基한制限을 無視하고 建艦할 境遇 質的制限案은 無效로함

右私案에對하야米國代表部에서는 다시精細、精密한 條項을 要求하고잇는데 週末 英佛伊三國代表間에서 折衝하야 어떠한 決定에 到達할것으로 보힌다 技術專門委員會는 七日午後三時十五分 다시 開會하고 起草分科委員會의 報告에 基하야 質的制限案과 建艦通報案을 基礎로한 新海軍條約案을決定하고 이어서 來週中에 第一委員會를 開催하야 英米佛三國代表가 新條約에 假調印을 了하야 倫敦海軍會議는 前後三個月로서 大團圓을 告할터이다 그리고日伊兩國政府의 參加를 要請할豫定인데 一九三七年一月一日까지에 兩國政府가 新條約에 參加하지안흘 境遇에는 英米佛三國政府에서는 全혀 新見地에서海軍制限案에 關하야 再檢討를加할 意向이라고 解釋된다

英空軍豫算
四千三百五十萬磅

【倫敦六日發同盟】 英國政府는六日 一九三六年으로부터 三七年에 至하는 年度의 空軍豫算을 發表하엿다 新豫算總額은四千三百四十九萬磅 一九三五年으로부터 三六年에 至하는 年度豫算에 比하야 千二百四十八萬八千磅의 增加를 示하야 空軍豫算으로서는 空前의 大豫算이다 右豫算으로 第一線空軍은 百二十三中隊、編成飛行機一千五百機에 達하고 人員은 現在의 三萬三千名으로부터 一擧에 五萬名에 增加될터이다

佛水雷艇三隻
建造案可決

【巴里六日發同盟】 佛國下院軍事委員會는 六日 水雷艇三隻 給油艦一隻 建造案을 可決하엿다 新建造豫算은 約二億法이다

유-고國首相
反對黨員이狙擊

【벨그라드六日發同盟】 유고슬라비아首相兼外相 스토야디노빗치氏는六日午前十一時二十分 議會에서演說中 反對黨議員아로도빗치氏에게 피스톨로 狙擊되엇다 但 스토야디노빗치首相은 演[illegible]에 몸을숨겨 危機一髮을 救하엿다 兇彈은 議員數名을 負傷케하고 아로도빗치氏는 即時 逮捕되엿다 犯行은 酒亂의 結果라고 보힌다 議事는 午後零時十分 再開될터이다

結核
AO의治療的應用
解說呈上
肺結核、眼科結核、肋腹膜炎
皮膚結核、外科結核、
泌尿生殖器結核、喘息等
特히肺結核의初期及眼科的結核에卓効잇슴은 이多數醫學大家들의實驗報告로써確實하다
AO의豫防的應用
潛伏結核、淋巴腺腫、
虛弱體質、結核疑症等
特히腺病質並結核의疑心잇는學生과兒童에對하야서는꼭接種을試驗하야서發病豫防、體質改善을圖謀할것을 바란다
AO의診斷的應用
治療를兼한無害한診斷法
免疫元 아-오-
製法 日.英.米.加.愛蘭專賣特許
有馬青山太綱至醫學博士創製
定價 大人用 一瓶 小兒用 一瓶
發賣元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 須美商店

鹿矢 TRADE MARK
春向 洋傘 メリヤス 綿布加工品
(元賣發)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大阪市東區南久太郞町四丁目心才橋筋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繁昌하는商店主는반다시 相互通信을愛讀하고잇습니다
조선문
◎本號의特色。絶對로信用잇는大阪貿易商廣告滿載
◎篤志家에게는一部金壹圓式하는購讀料를 一般人士에게는一部金十錢으로割引 大阪市上福島南一ノ三三六으로先金注文하시오 振替大阪七六九五九番
本紙創刊大正十三年 大阪相互通信社

現代的趣味에最合하고實行이極히良好한
ステツキ パイプ 卸商
(申込次第型錄進呈)
井村友三郞商店
大阪市東區北久太郞町四丁目心齋橋筋
電話船場三八七八・振替大阪三一八九〇番

鋸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武村製作所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電話東八一六 振替大阪七六四七〇

百圓資本으로文房具店을開業하실수잇습니다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電話船場四七七七番 振替大阪三一五七三番

大阪着名問屋案內
春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春日午景!

有吉前公使暗殺(未遂) 主謀四名이 被捉

南京으로부터 上海潛入中 上海領事館警察에

【上海七日發電通】상해 총령사관경찰서 오늘랑일간 공동조계(共同租界)와 불국조계가에서 조선인 네명을 체포하엿는바 그들은전일유길(有吉)대사 암살미수사건의 주동자들로서 이로서 상해재류조선인의 ○○운동과『테롤리스트』의 최예분자는 거의 다 붓들린 셈이라고 한다 체포된 조선인은 맹혈단(猛血團)원 한도원(韓道源)(三一)김승곤(金勝坤)(三〇)오면직(吳冕植)(三四)김정근(金正根)(三五)으로서 모다요인암살을 목표로하고 최근남경으로부터 당지에 잠입하야 회합중에 붓들린것이라 한다

陸軍記念日에 空陸으로練習

오는십일의 육군기념일을압두고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여러가지 준비를하고잇는데 그 대략한것과 일반시민의 주의사항은 다음과갓다

一、십일엔 오전열시오십분부터 광화문압헤서분렬식(分列式)을 할터인데 학교、지방단체들은 훈련원에 모이엇다가 출발케될터이고 전차(戰車)도 참가하고 전서구도 날릴터이며 한편으로 공중에는 비행긔의공중분렬식이 잇슬터인데 평양항공연대의 경폭격긔 세대와 전투긔 여섯대가 참가하여오전아홉시반부터 경성상공을날으며 폭격연습을할터이다 비행긔에서는 신호권총을 발사하여 약산의폭죽과가튼 불이 날물터이라는데 시민은 주의하야 화재의 념려가 업도록 하라고하며 또 비행대는 인천개성방면의 비행도하고 오후한시부터 경성상공에서 공중분렬식을 할터이다

一、이날오전 총독부압헤서 륙상부대의 분렬식을할때 오전십시 오십분부터 끗나기까지 효자동 안국동방면행 전차는 운전정지케 되고 일반자동차도 정지식힌다 통행인은 서편길을 통행하라고한다

一、칠일과 구일에는 시내학교에서 아래와가티 륙군측의긔념강연이 잇다 고한다

▲七日 養正高普 岡本通譯官
▲七日 培材高普 淺野主計正
▲七日 普成高普 藤本大尉
▲九日 京城保育學校 二味主計
▲七日 京城實業專修校 奧大尉
▲七日 東星商業 熊谷少佐
▲七日 倧新學校 船崎大尉
▲七日 京城中等公民 中山大尉
▲九日 京城女子技藝 越智少佐
▲九日 貞信女學校 渡邊主計
▲九日 龍谷高女 山田主計正

酒醉한富豪를脅迫 萬圓을騙取分食

惡黨三名鍾路署에就縛

륙일밤 열시경에 시내종로서(鍾路署)사법계에서 시외아현리팔십오번지김성규(金成奎)(五二)(假名)등세명을 일만원사긔혐의로인치하야다가 방금엄중히 취조하고잇는중인데 그들은 얼마전에개풍군진봉면 봉동리(開豊郡進鳳面鳳東里) 사는 리한영 (李漢榮)(五〇)이라는 큰지주를 경성으로 유인하여와서 시내의 각료리집에서 질탕히 놀다가 시외 성북리(城北里)에 잇는음벽정(飮碧亭)에 데리고가서 일백여원어치 주식을먹고 리한영이가 술이잔뜩취해너머진틈을 타서이를 협박하야 그의소유토지 시가 일만원어치를 단돈 팔백오십원에 판다는계약서를 무리로날독식혀가지고 이것을 시내의 다른사람에게 넘겨먹은것이 탄로된것이라고한다

孟浪한詐欺漢

잡어보니前犯者

【開城】지난오일밤여덜시경에개성남본정(南本町)리근택(李根澤)상점에 어던것서른 남자손님이 와서 본견(本絹)하부다이 팔십원어치를 끈어가라오 녀자에게주워보낸후 자긔는 마츰 수중에돈을안이가젓스니 점원을 보내주면 물갑을 주어보내겟노라함으로 주인되는 리씨는 그자의 언어행동이 좀수상하야 점원두명을보내더니 그자는 어느 으슥한 골목집으로 끌고가더니 이것이나의 장인집이라고 문을두다렷다한다 이때주인이 문을열고 나오자마자 이자는 똥이마렵다는 핑계로 모자를 맷기고 도망을 감으로 어린 두점원은 그자의 두루맥이 자락에 매여달렷스나 결국은 뿌리치고 도망가는것을 절가든 류리사람의 응원을밧어 이자를 체포하야종로파출소(忠□派出所)순사에게 인도하야 본서에 압송하얏다는바 이자는 본적을 평산군(平山郡)에둔 류명길(柳明吉)(三〇)이란자로서 전과 이범으로 줄옥한지 불과 두달도 채못되오늘에 또개성에와서 남산정(南山町)에서 음식점하는최명길(崔命吉)을 감언리설로 꼬여가지고 정을통한후 전긔와가튼행동을 또감행한것이라한다

절놈바리少年이頭目 구두千餘足窃取

然中에根據地는派出所엽 一團七名을捕盡

대경성의 관문(關門)하로에 수마명을 토하고집는 경성역복잡한 교통을눈압헤두고 경성역파출소의엽을 근거로정하야 칠팔명부하를두고 구두전문 도적을 일과삼아하는 절놈바리절도 괴수가붓들렷다 그는일정한 주소업서 거리를 헤매는 절놈바리 소년 김용한(金用漢)(一五)으로 좀도적 소매치기등 소변부하일곱명을 모아노코 구두도적하는 특수한 기술을 전기장소에서 작년십이월부터 제법강의삼아 가르켜가지고 구두절도를 부하들식혀 절취하도록하야 저는 절놈바리임으로 절도의실천은못하고 부하를지휘하는 임무만 마터가지고

致命的麥作凍害

咸鏡北道를除한十二個道는 三割乃至四割의減收豫想

酷寒의創痕

나날이계속하는 무서운 추위로 금년에잇서서전 조선의 맥작(麥作)은 모다동해(凍害)를 바더 함북(咸北)을제한 십이도는 삼할내지 사할의감수를 예상한다는데 농림국(農林局)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협의한결과 속효성춘비(速效性春肥)의 시비(施肥)를 가급적 장려함과 동시에 각도에 피해실정에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금번 십이도에 통첩을 발하엿다한다

向上女子技術學校 實業校로昇格

시내천연동(天然洞)에잇는 향상회관(向上會館)부속 향상녀자기예학교(向上女子技藝學校)에서는 벌서전에 그학교장률전혜성(栗田惠成)씨의 명의로 총독부당국에다가 향상녀자실업학교(向上女子實業學校)로의 승격을 신청중에잇든바 일혓날 날짜로그 정식인가의 지령이 나왓슴으로 이로써 그학교는 완전한 녀자 중등학교가 되엿다 한다

古市町에火炎

칠일 오후 여덜시경 시내고시정(古市町)십사번지 김윤용(金允用)외 우차수선장 (牛車修繕場)에서출화하야 일동 일호를전소하엿다는데 손해는 약이백원이라 하며 원인은 방금 조사중 이나원인은 온돌의 불완전이아닌가한다

平壤府電純利益 七萬圓을超過

【平壤】평양부전을 사수(死守)하라는 소래는 십팔만 부민의 여출일구의 합창(合唱)이다 이때문에 평양부회에서도 화력자가 발전을 가결하고 그긔본조사를 실시하고 잇는동이거니와 이제 작년사월부터 이월말일지의 부전긔과의 수입을 따저보아도 칠만원이란 순리익수입이 압서 평양부 예산편성우에 큰 영향을 던저주고잇는터이다 전차수입은 삼십만오천백칠십구원 빼쓰 수입은오만 팔천백구원 전긔 수입은 팔십오만오천일백팔십오원으로 예상수입보다 륙만여원의 증수이며 아직 수입이 만흔 삼월한달이 남어잇스므로 칠만원의 순리익이 생기어 일반회계에 편입이되고잇는 것이다 이것을보아 평양부전예산운행우에서 전긔과는 중대역할을하고잇는것임을 충분히 짐작할수잇서 부전에 대한 부민의 관심은 더욱 커가고잇는터이다

府擴張大祝賀會 京城府에서準備中

오는 사월일일로써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대경성의위용을보게됨에 경성부에서는 대축하회를하고저 준비중인데 오는 일일에 보통학교아희들의 긔행렬도잇슬터이고 축하회는 부민관에서성대히 개최하리라한다

順川殺人犯逮捕

평양남도 순천군사인면(平南順川郡舍人面)에서 사람죽인 살인범 최명빈(崔明賓)은 도주이래 각경찰에서는 그를엄탐중 평원군(平原郡)압에 자긔의 륙촌동생되는 최이진(崔以鎭)의집에 숨어잇는것을 평원(平原)서원이 발견하고 무난히체포하야 곳순천서로 압송하엿다 고한다

探偵小說도赤面할 岡田首相脫出眞相

—福田秘書의縱橫無雙한救出機略—

生?死?間一髮에서來往

강전(岡田)수상의 살아나온경로를 이제야 분명히 알게되엿다 즉이월 이십륙일 오전다섯시에 강전수상은 관저(官邸)침실에서 별안간에 터지는 총소리에잠을 번득 깨엿다 그순간에『오월십오일사건』이래로 관저정문에 장치한 비상초인종이 관저안에 울려도겨서 경고를주엇다 별안간에 벌떡 이러난강전수상의 겨레 수상게 대해서는 조호뭇이며 의제(義弟)인송미대좌(松尾大佐)가 달려 와서『군인들의 습격이다 피해주시오』하며 소리질르는 송미대좌의 낫에는 비상한 결의가 떠올랏다 수상은『실라피하지안켓다 피할것이 아니다 그들의이야기를 드러보자』하고 피할려하지안햇다 송미대좌는『이제는 허되히 죽을 때가 아니니 피해주시오』하고 강권 수상을 끄려안듯이하야 부엌쪽으로 런속한 뒤마루로 끄러내여 그때 마츰들리간 촌상(村上)순사에게『총리대신을마끼다』고하며 드림한채로자기는 반대편인동편으로 통한뒤마루로 피해나갓다 이때에 벌서호위경관을 쏘아 죽이고서 쳐입한 반란부대의 일대는 송미대좌에게 맹렬한 사격을하여서 소리를 질르면서 뚤에구을려 며러진 송미대좌의 비장한 죽음을 이룬것은 이때이다 반란군은 송미대좌의 시체를 수상의시체인줄로 그릇알엇승인지 침실의 친상에 옴겨서 총을네르고 경례를하고서 곳나가버렷다

◇

복전비서관(福田秘書官)이 수상이 죽어다는것을 안것은 이날오전 아홉시쯤에서이다 일분이라도 빨리 비서관사를나갈려한때에 벌서 반란부대의 병정이 문깐을지키고서 한거름도 나가지못하게 하엿다 비장한 기분에 싸인복전비서관은 자긔의 눈으로 수상의 죽음을 확실히 알어보고십고 또한 향불이라도 한개 켜고십다고 타원한 결과『그것은 그럴일이다』하고 겨우 친실에 드러갈수잇게 되엿다。가로 때는 오전아홉시반이엿다。가로 노혀잇는 시체우에 걸처잇는 흰 베개를 경비하는 병정이 벗긴 그 순간에 복전비서관의 눈에 비최인것은 의외에도 강전수상이 아니고 송미대좌의 눈감은 얼굴이엇다。겨레는 내가조직당시의 세비로양복을 입고 밧인 수상의 사진이 떠러저잇섯다。『낫을 대조해보앗고나』고 직감한 복전비서관의 귀에는『수상이 틀림업드냐』하는 소리가 벌커 들겻다『틀림업다』고 간단한 대답을 하는 사이에 복전비서관의 머리속에는『한층 더 위험』이 절박하엿다 정성것 분향을하고 나올려할때에 복전비서관의 귀에는 또 딴소리가듯겻다『이가운데 아직 한사람 잇다』는 말을 어떠케 해석해야 될것인가를 알든복전비서관은 그다음에 할일이 무어인가를 알엇다

관사에 도라가서 정신사람히 몃시간을 계속하고 잇는 복전비서관의 아페는 모소위 (某少尉)의 명을 바든 병정이하녀두명이 관저에 잇스므로 박그로 나가라고 명령하엿스나 복전비서관의 명령이 업시는 한거름도 나가지안켓다고 버티고잇다 당신이 잘 말해달라는말을 전하엿다 복전비서관의 혼란한 머리에도 아즉 수상을 끗꼿내 지키고 잇는 두녀성이 잇슴을 이제비로소 알앗다『그러면 내가 이야기해보지』하고 두번재 수상관저에 달려간 복전비서관은 그뜻을 전햇스나 그두하녀는 서방님의 말슴이 잇기까지는 한거름도 밧을떨수가 업다고 대답햇다 들에는 감시병이지키고잇는판이다 복전씨의뺨에는눈물이흘럿다 이두녀성은추본(秋本)『삭구』(一九)부천(府川)『기누에』(二〇)의두명으로서 이상의문답을듯고 잇슨반란군의병사들도 이녀성들의 의렬에 감복을햇는지『그것도그럴듯한일이다』라고 하녀들의피난을렷과 수상의 시체운반제의를통시하엿다

◇

이튼날은 이십칠일! 긴장한 공긔가 극도로 팽창된 이날정오 수상관저 일본식거실(居室)에 뒤를 이어 몰려든 모닝패『하오리』『하가마』패 로인들십여명이 나타낫다。모다들 머리를 숙인채로 유해(遺骸)가잇는 방으로 드러오자말자 벼락가튼 고함소리가 나며『이 못생긴것아 흥분하면 안된다고 그만큼 말을 햇는데도 뇌빈혈까지 이르키고 헐수업는자식!』이라는 소리가 들렷다。이소리의 임자는 누구일고? 문간에는 ○○에 싸여『마쓰크』를한 로신사가 나왓다。복전비서관의 극도로 긴장된 고함소리는 계속하로 곳잇섯다。대려하고잇든 자동차에 안기워 태이듯 오르자말자 자동차는 술머시 달리기 시작햇다。이곳은 반란군의 엄중한 경계진복판이다。

그로부터 면분도못되여 정교구하락합(淀橋區下落合)삼번지의 이백사십륙호 복좌홍업사(福佐興業社)좌좌목구이(佐佐木久二)씨 문어구에서 자동차로부터 내린 늙은신사는 놀라자마라 강전수상그이로서그를안 사람은 복전비서관한사람뿐이엿다

◇

수상이 사러잇다는 보고를바단 삼국정(三國町)분대장 천전(淺田)등은 소창(小倉)등이 복전 비서관과 함께 극비밀히 구원해낼 계획을 세워 오래동안 그동대의 벌거주임으로 민첩한 수완을 가진 소판조장(小坂曹長)을 지휘관으로하고 여기에다 달한 청류군조(靑柳軍曹)와 거긔한 소창오장(小倉伍長)을 배하야 이겹서적 난처한 사업에 당케하엿다 일행은 관저에 이르자 곳소판조장이우선 점거부대 (占據部隊)의 간부와 조문객(弔問客)의 출입과 분향의 방법 등에 관하야 교섭을 하면서 예정한 계획대로『시체안한방은 헌병에게 맛겨달라』고하야 점거부대를 밧바그로 내여보내고 그수분동안의 틈을 리용하야 강전수상을 조문객의한 사람과 가티 변장시켯다 청류군조는 반란부대의 주의를 전부 송미대좌의 시체로 집중시키기에 전력을 다하엿스며 이사이에 소창오장은 집밧게 서서 감시의 책임을 마타잇스면서 자동차의 배치등 만단의 준비를 정돈하야 긔회를 엿보아 다섯겹이나 싸고 잇는 경계진을 돌파하고 드듸여 강전수상을 구원해낸것이라한다

九千餘戶가絶糧

移住者와乞人이날로激增

長津郡民의이慘狀

【長津】함남장진군(長津郡)은 삼년래로 계속한 흉작으로 인하야 농민전부가 거의고궁에 빠저처참한 생활을지속하고이슴은 세인이공지하는 현상이어니와 작춘에는 조옥까지 떠려저 군내 유지들이 혀사한 또수천원과함남도당국에서 팔만원의 거금을 내여 타지방에서 조옥을 구입하여다가 겨우 농사를 짓게되엿으나 작년도 역시 전년보다 못하지안흔 흉작으로 오、륙할 내지팔구할이란 무서운 감수를 당한 농민들은 실로 처참한 사활선상에서 또다시 헤매이게되여 요즈음 식량이 떠러진 사람이 전군을통하여 일만칠백여 호에 구천여호라하며 로상에는 남부녀대로 살길을차고저 방황하는무리와 걸인만 날로 점점 늘어서 보는사람으로 과연 동정의눈물을 금할수업는 처참한 참상을 일우고잇다 한다

運動競技

癸酉歡迎蹴球戰에 中等卒業軍惜敗

六對三으로癸酉軍勝捷

今春蹴球界의序幕戰인 癸酉蹴球團主催의 中等校卒業生歡迎蹴球戰은 豫定과가티 七日午後四時五分부터 培材高普運動場에서 吳在義氏(主審)陳錫均、朴利錫(線審)三氏審判下에 癸酉蹴球團先蹴으로 開戰되자 癸酉軍六分에 蹴球를當한後 學生軍猛襲이 數次잇드니 十五分에 CF朱榮澤君의 單獨『드리블』로 골을 어덧슴에 反하야 癸酉蹴球團은 同二十分에 CF朱榮澤君의 『쓰로』를 LW李申鎬君(普成)의『패스』를 밧어 射蹴하야 最初의골을 지은다음 繼續하야 同三十分에 『핸』으로 同卅四分에 LI李裕澄君의『슈』로 골하야 二對一로 타임업되엿다 後半戰에 드러가 前半에 優勢를 보이든 卒業生軍 一分에 골을 한點을 빼앗겨 二對二同點되엿다가 癸酉軍猛襲으로 十四分과 十六分、卅分에 各一點式의 得點을 지엇고 學生軍은 卄七分에 RW高龍成君(徽新)의『헤』로 一點을 回復하야 結局 六對三으로 今春卒業生軍이 惜敗하엿다 (寫眞은 兩軍入場式光景)

延期中에잇든 올림픽拳鬪 四月八日에擧行

【東京電話發通】東京事件으로 延期되엿든 올림픽派遣選手를 決定할 全日本全國選手權大會 決勝戰은 來四月八日밤 日比谷公會堂에서 擧行키로決定되엿다

鐵道軍러비大勝

春季러비第四日의 鐵道局對京城商業戰은 七日午後四時半부터 龍山新球場에서 열리바 京城商業軍 始終壓倒되여 八十對八로 鐵道軍에게 大敗하엿다

鐵道局80 (53 27 / 5 3) 8京城商業

武村選手足部切斷

前明大水泳選手로서 朝鮮鐵道局水泳部主將으로 轉任한 武村淸君은 昨年冬期에 金剛山으로 狩獵을 갓다가 過失로 自己다리를 銃으로 쏘아 龍山鐵道病院에 治療中이든바 水泳選手의生命인 右足을 切斷하고 지난三日에 退院하엿다한다

코찌크選手復活

【桑港聯合】米國背泳界의 第一人者 아돌푸ー·키퍼ー選手가 出現하기前에 多年世界記錄을 保持하고잇든『조지ー·코찌크』選手는 『로스엔젤스』올림픽大會前年 學業에 專念하야 博士學位를 엇기爲하야 競技界로부터 姿態를 감추엇든바 最近學位를 獲得하엿슴으로 再次競技界에 나타나게되여 지난달八日『뉴ー욕』에서 열리엇든 AAW메드로폴리탄 시니아ー百五十碼背泳에 出戰하야 一分三六秒一의 好記錄으로 優勝하야 隱退前보다 優越한 實力을 發揮하엿다『코찌크』의 復活은『키ー퍼』『엘데위ー』等 猛者들과 함께 伯林올림픽大會制霸를目標로 米國背泳陣은 金石鐵壁의觀이잇다

今日의運動

▲러비ー리ー그第五日 京城러비對水原高農(午後二時半)京城師範對京城商業(午後四時)以上龍山新球場

日曜講話

▲復活社講堂 午後二時半 예수奇蹟의特殊性 金敎臣 氏
▲齋松敎會 午前十一時 生命의訓練 全弼淳牧師
午後七時 洪秉德先生
▲南大門外敎會 三月八日 午前十一時 十字架의道 午後七時半 金英珠牧師
▲宗橋敎會 精神的行路 午前十一時 高明宇博士
▲培花學校卒業禮拜 午後七時 張鳳英 氏
▲基督敎의進路 三月八日午前十一時 洪秉璇 氏
▲佛陀의涅槃 午後七時 朴□權先生
▲尙洞敎會 社會改善과基督敎 午前十一時 姜泰熙牧師
▲市內天然洞石橋敎會 午前十一時 (卒業生祝賀禮拜) 金昌俊 氏
▲普樂禮拜 午後七時半 勝利
▲三百兩의思想 金熙運 氏
▲中央敎會『生命의道』午前十一時 沈明燮牧師
▲『奇蹟的權能』午後七時半 貞洞第一禮拜堂 金明性先生
▲信者의準備 上午十一時 下午七時 洪淳浩牧師
▲歡喜와希望 金鎭浩牧師

노음모양 절어진약 가이자ー!

▼다음가트신 분은 가이자ー를 쓰시오

가이자ー의효능

빈혈증(貧血症)신경쇠약(神經衰弱)로쇠(老衰)근기상실(根氣喪失)영양부족(榮養不足)성적신경쇠약(性的神經衰弱)보혈강장제(補血强壯劑)약은환약이오동서양정제약、약갑십원、오원、증세가심하면십원짜리를쓰시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

림질 대하 방광병중엔 구로벨절이

▼다음가튼 증세에는 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의효능

남녀만급성림질(男女慢急性淋疾)대하증(淋毒菌起因帶下症)뇨도염(尿道炎)고환염(睪丸炎)산증)방광염(膀胱炎)섭호선염(攝護腺炎)녀자오좀소태、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제증(其他淋毒性諸症)

약갑 특제구원、만성용오원、급성용과 부인용삼원이오 일주일분이나삼원이나다 약은 상하지아니합니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당일로비밀히보냄니다 지방송료는 선금이면십오전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매독엔 푸로다ー! 가제일이오

이런분은 쓰시오 남녀의 국부가 헐고가려운데 눈이회미하고팔다리가쑤시고 목이쟁기고 머리가 빠지며 여긔저긔종기가나고 코가헐고 멍울이스는데는 푸로다ー를쓰시오

푸로다ー의효능

매독(梅毒)、창독(瘡毒)、매독(梅毒)、태독(胎毒)、습독(濕毒)、선천매독(先天梅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痲質斯)

약은환약이오구갑이나거나위장을안상합니다 약갑 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중한분은보통병과다르니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 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만일 일부스는약이든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로 병에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효과가업거든 약은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슴니다

京城西大門町一丁目(五)제일은행앞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失言道議員膺懲 때라事件의擴大
關係産組幹部續續檢擧中
出版法의違反이라고

【大邱】 경북(慶北)선출도의원 산구(山口貫三)씨는 제오회경북도회에서 산업조합(産業組合)을 지방의 중소상인을 여지업시 파멸로인도하는것이라고 공석상에 유해무익한것을 지적하고 공격질문전이 잇섯는데 경북도내 각산업조합측은 이에 대분개하야 산구씨의 실언에 대한 배격결의를 하는등 도회의원의 사직을 강요하는때라 이를 엄폐하야 각관계자에게 산업을 위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경북경찰부에서는 출판법위반에저촉된다하야 각지경찰서에 명령하엿슴으로 대구(大邱)를 위시하야 도내각경찰서에서는 대구로부터 도라간 각지 산업조합 관계자약십명을 검거하야 목하취조중이라는데 이로말미암아 사태는 점차로 확대되엿다고한다

龍城産組理事 李相秀
同 組合長 金相坤
乾川産組理事 崔榮斗
同 監事 白經玄
店村産組評議員 加藤舜次
慶州産組監事 白容準
咸昌産組理事 金漢翊
同 監事 白南軾
大邱産組監事 外數人

盈德近海에서 青魚大豐獲
沿岸一帶의大活況

【盈德】 경북영덕군 동해안에서는금년에는 청어(鯖魚)의 흉어(凶漁)로 당어자는 물론이오 일반경제에 대타격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본군 영덕어업조합(盈德漁業組合)구내에서는지난삼일까지 오보동(烏保洞) 노물동(老勿洞)등삼개소어장에서잡힌 청어가 이백칠십여동이며 세망치(細刺網)까지합하면 삼백여동에 달한다는바 가격은 틈망치 매급에 팔집오전 세망치매급에 일원식 판매되엿다는바 그가격은 삼만원을 돌파하엿스며 이로인하야 당업자와 부근일대는 근일에드므롱어로 활긔를띄게되엿다고한다

元山灣內에도 青魚群이襲來
價格이大暴落

【元山】 삼월상순이 밧이나가도록 청어군(青魚群)의 습래가업서서 원산만내의 어업자들은 매우 초려하고잇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수일전부터 원산만내의 신도(新島) 황토도(黃土島)부근에서 청어가 오륙태 내지 삼십여태가 잡히기 시작하야 불안에 잠겻든 어업자에게 일대 작약(雀躍)을 주고잇다고한다

이와가티 원산만에 청어군이 습래함에따라 강원도 장전(長箭)부근에서도 대풍획을 하얏다는데 이로인하야 지난륙일에는 일백삼사십원이라는 고가를 불으럿든것이 한바리에 오륙십원의 대폭락이 되엿다고한다 이가티 청어가 잡히엿스나 모다 원산관내 어시장에서만 풀니고 원산근처 어항에서는 풀리지 안어서 원산어항에는 황량한 바람만이 오락가락하고잇다

仁川支局主催의 力技大會延期
―來十三、四兩日로―

【仁川】 력기의장려와 독자위안을목적한 조선의력사 한준호(韓駿鎬)군의 력기대회는 사정상 오는 십삼사량일로 연긔하얏는대 일반에게는 료금삼십전 본보칠 정독자에한하야 이십전에 할인하리라한다

瑞山初上映의 發聲映畵大會
本報支局後援

【瑞山】 서산향상영화사(瑞山向上映畵社)주최 본사서산지국후원으로 상설극장내 가설극장에서 전발성영화대회를 개최키로되엿는데 서산에서는 처음보든 발성영화임으로 인긔는 비등하야 미리부터 성황을 예긔한다는바 더욱이 발성긔계는 미국 『알、씨、에이』를 사용함으로 발성이 완전명요할것이며 관객에 만족을 줄것이라고하는바 조흔긔회를 놋치말고 다수관람하기를 바란다하며 개최요항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一、時日 三月八日(舊二月十五日)一日間午後八時
一、場所 瑞山邑內假設劇場(島村商店側)
一、映畵 朝鮮語全發聲 아리랑고개 全發聲 爆走하는惡魔 探偵大活劇 非常線

酒狂부리다가 畢竟마저죽어

【晉州】 경남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에 사는 강하수(姜夏守)와 동면 안계시(安溪市)어떤집에 고용으로잇는 고용청(高容淸)과 자웅지 싸움한 결과 고용청은 명에 세상을 떠낫다는데 지난삼일 오전 십여시경에 그원인을 알기위하야 경찰서에서는 죽은사람을 해부까지 하엿다고한다 듯건대 결국 고용청이가 월횡리 강하수의집에가서 술을 만히먹고 주광을 하야 강하수에게달려들어 싸우다가 고용청이가 맛게 되것이라고한다

地方人事

▲李鍾涉氏(高敞郡農會技手)棉作係轉職人事次本報高敞支局來訪

些少한言爭끄테 作人을亂打重傷
五十餘作人蹶起對策講究
東亞勸業農場員의暴行

【奉天】 봉천시에서 약사십리를격한 심양현제구구(瀋陽縣第九區)판교자(板橋子)에서 동아권업회사농장(東亞勸業會社農場)의소작인으로 잇는 오경장(吳慶璋)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자긔가 경작하고잇는 농경지(農耕地)가 너무멀리떠러저잇는관계로 해마다 경작에 불편을늣겨오던바 금번동농장에서 소작지이동전형회의(小作地移動詮衡會議)가 잇섯슴으로 이긔회를리용하야 전긔오씨는 지난오일오후한시경 동농장원에게 이와가튼사정을말하고 경작지이동을간청하엿든바 동농장에용원(傭員)으로잇는 김주전(金周銓)은 이를거절하고 작년에도이동하엿는바가 잇다는등 사실도업는말로써 언어도단의 언행을함으로 전긔 오씨는 억울함을참지못하야 이동해 주지 안엇스면 그만인데 사실이업는허무한말을 한다는말로써 항의하여 서로언쟁을하다가 전긔용원인 김주전은 『석탄부삽』으로 오씨의두부를구타하고 동농장주임이란 동면(東勉)도 철편하여 무수히란타하야 오씨는두부(頭部)에 구센치와팔센치 이개소의 렬상(裂傷)을 입엇다는바, 이소식을들은 동지소작인오십여명은 분개하야 그날동농장을습격햇스나 가해자김주전은 어데로 피해버려고 전긔동면은 소지한권총까지끄내게되엿는데 급보를 바든 동지파출소에서 현장을 달려가서 이를제지하고 조로록해결해준다고하야 그날은 그대로도라가고 피해자오씨는 고송천으로 운반하야 당지만철병원(滿鐵病院)에 수용하고 응급치료중 전치이주간의 진단을 밧게되엿는데 오씨는 가해한 전긔두명을상대로 지난륙일 령사관경찰서(領警)에고소를제긔하엿다한다

그리고이사건이발생되자 동지소작인들은 이와가튼농장에서 그들의지배를밧고잇다가는 압흐로 어떠한 일이생길는지 알수업는일이라하야 오십여명이 련명날인(連名捺印)한후 지난칠일 대표김긔두(金起斗)조룡연(趙龍淵)량씨외이명을보내여 당지거류민회(居留民會)와 령사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엿다는데 금후 사건귀결이 매우주목된다고한다

代表 金起斗氏談

참으로 억울한일입니다 소작인들이라고 너무압박해요 그와가티 무지하고 비인간적행동을하는자들이 압흐로어떠한 불법행동을할는지 알수업는일임으로 그대로둘수는업습니다 운운

麯子十餘萬枚 腐敗되어損失

【慶州】 영천 경주량군을관할하는 경주곡자조합(慶州麯子組合)에서는 금년에드린『누룩』십여만장이 부패하엿슴을 발견하고일대소동을 일으켯다는데 지난달십팔일에 림시이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한결과 썩은십만여매의『누룩』은이원인각지주업자들이 각기 분배하엿다는데손해는 약삼만여원에 달하고원인은 저장불완전한 까닭이라한다

◇…新築落成된全州新興校大講堂 ―(本紙第二面記事參照)―

仁川

慰安 讀者 **韓駿鎬力技大會**

▲時日 三月十三、十四日로延期
▲場所 公會堂에서
▲會費 三十錢讀者에는二十錢
◇主催 朝鮮日報仁川支局

남자나녀자나 독을밧은갓치생각되면
男女とも 毒を受けたと思はゞ
독소환을잡수시라
毒掃丸を召しませ
기분조케체독을배제함
気分よく体毒を排泄す
약점에잇슴 薬店にあり
代三十錢五十錢一円二円 약가 삼십전 오십전 일원 이원

꼭낫는다!! 肺病必治

無料(內務省(衛生局)編纂의結核에關한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療法을가르처드리고 도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흔藥과조흔養生을알려는사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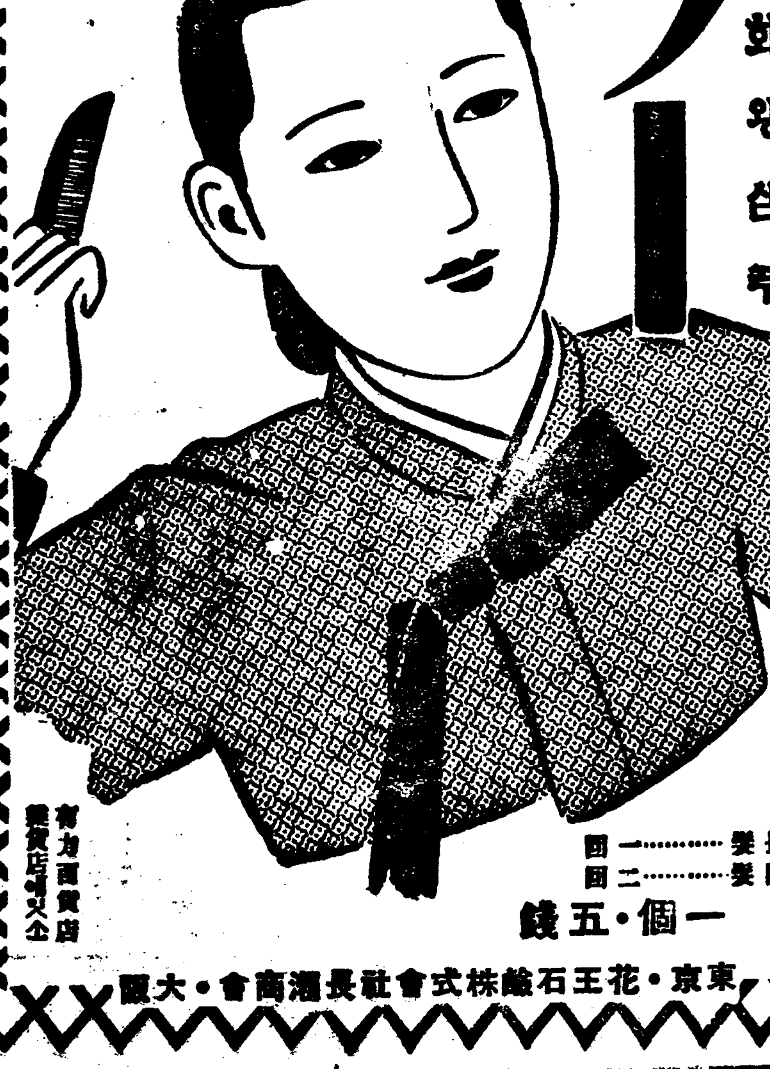
엇더한重症患者라도勿爲失望

身熱이나리지안는분 / 기침이끗치지안는분 / 밤에식은땀나는분 / 喘息되는분 / 喀血되는분 / 억개가무거운분
不眠症잇는분 / 每日疲瘠하는분 / 胃腸이弱한분 / 頭痛나는분 / 倦怠症나는분 / 胸腰痛잇는분 / 關節이잇는분

第三期患者도全癒마십시요 내가나흔것이무엇보다도證據입니다 數年前에무서운肺病에걸인나는世上에 흔한藥과療法에莫大한金錢을無益하게쓰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보앗스나죽엄을기다 릴뿐인重病에나는安心하고잇슬수업습니다 研究가헛되지안허 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하든나는드되어 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될수잇섯습니다 나에게는가장有効한 肺病特効藥其他病잇슬當時의 實驗談藥의選擇法 갈흔기침끗치는法喀血防止食料品의 選擇法一切의 肺病治療秘訣을一一히 懇切叮嚀히無料로눈구나에게든지가르처드림니다 또特殊 患者에게는 特効良藥을無代로드림니다 肺病、肋膜、肺炎、加答兒로苦生하시는분은 이글을보시게된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하로의躊躇가 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 이新聞名(朝鮮日報)를記入하야 一時라도速히肺病全快法無料贈與를請하라고하십시요 이것도數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 것이오니 奉仕하고잇는사람입니다 이모조록安心하시고聞議하야주십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二三
松島敎正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本品은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効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産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効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釜山府草梁町三〇二番地ノ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二一九番 振替釜山七九二三番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편하게감겨서윤택을더하는洗髮料
花王샴푸―는 때가 잘빠짐으로 헹구기가 簡單하고 短時間에 問題업시 잘감깁니다
花王샴푸―에는 美髮榮養劑가配合되야잇슴으로 머리의潤을더하고優雅하게됩니다
화왕샴푸―
長髮…二回 斷髮…三回
一個・五錢
有名百貨店 雜貨店에잇소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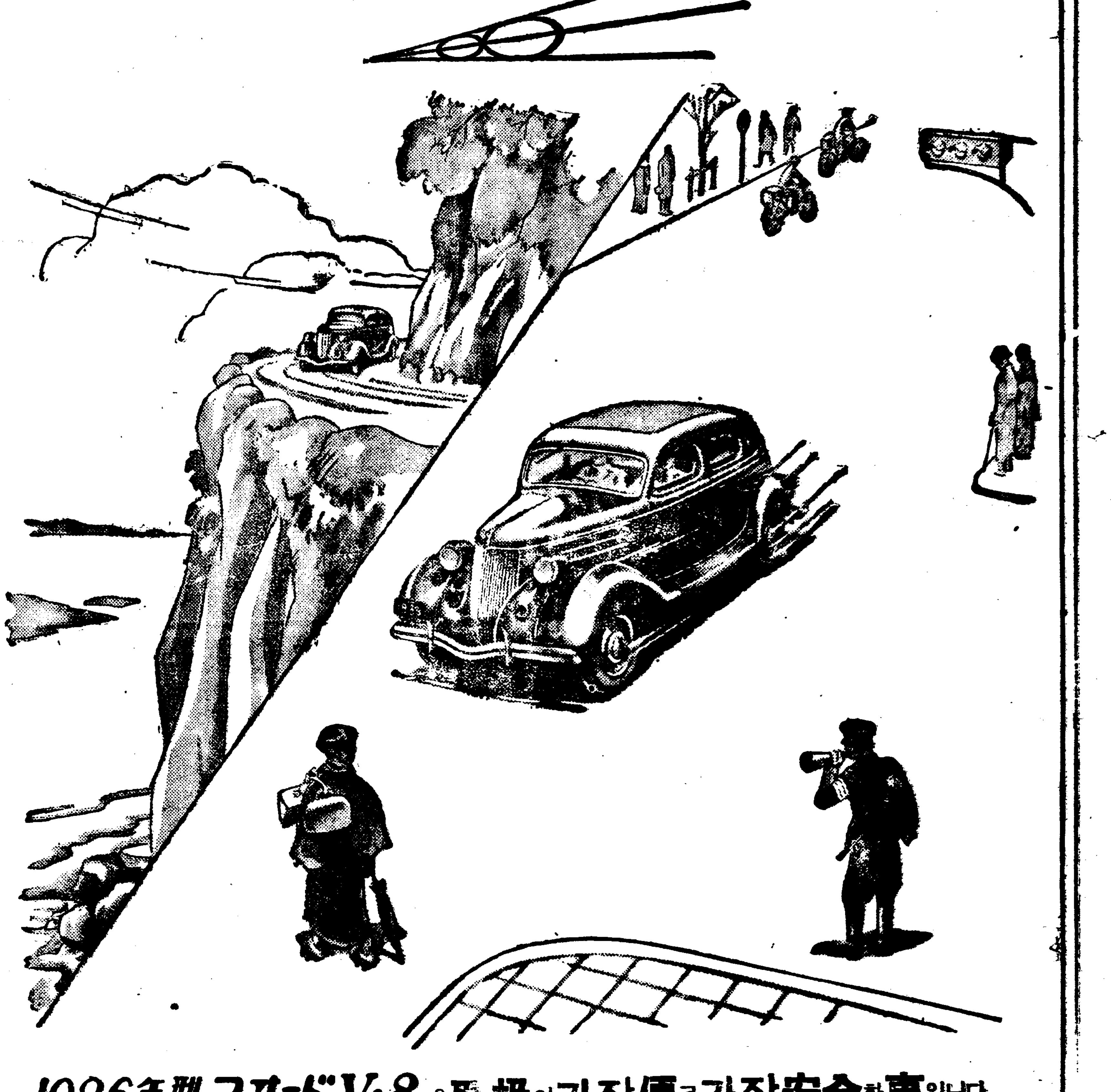


洋劇專門 浪花館
三月四日より三月十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地獄囃子後篇 三・〇八 三・三 六・四〇
め組の喧嘩 一・九 四・四〇 七・毛
花嫁くらべ 一・九 四・四 八・美
終演九時五十六分
右太プロ・サウンド版 ▲地獄囃子後篇
下加茂吉岡春の顔見世 ▲め組の喧嘩
長二郎・好太郎・浩吉・樾之助・敏子・久榮外總動員
蒲田トーキー 島津保次郎作品 ▲花嫁くらべ
お雛樣より美しい、十一組の花嫁、花婿のオンパレード・桃の節句にふさわしい、この名篇
十一日より 興大者と若夫婦 疾風森の石松

永樂町 中央館 電本三〇三一
六日特別大公開(五日間)
お姬樣道中記 傷だらけのお秋 三日月仁義
大人四十錢學生三十錢小人二十錢
新興キネマ京都時代劇 原作 山內英三 監督 厨子與三 オールサウンド お姬樣道中記
毛利峰子、松本泰輔、田村邦男主演 新興キネマ東京大泉作品 原作 三好十郎先生 監督 勝浦仙太郎 オールサウンド 傷だらけのお秋
伏見直江、河津清三郎 主演 モリモト映畫社提供 寶プロ超特級時代劇 原作 後藤袋山 監督 村上浪六 說明オールトーキー 三日月仁義
嵐寬壽郎大熱演 ポリドール人氣歌手東海林太郎主演歌吹込

貫鐵洞 優美館 電光三九五
三月八日부터 三大名畫封切! 謹告!! 始映時刻을變更하엿나이다
第一回―午前十一時半브터 第二回―午後三時브터 第三回―午後七時二十分브터
米國바―스오브도超特作全發聲連鎖篇第二回 大空의强襲 뿌스、뿌러스 릴 빠―이얼니암氏 주연
地下街 르시아 르부라운氏 主演 大空의說陣속에亂舞하는勇士의氣槪! 豪壯! 相擊! 壯烈! 悲愴! 유社特作全發聲日本版 무래! 릴스氏監督作品
모리모토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嵐寬壽郎主演 むっつり右門 仁念寺奇談 嵐山桂之助、原駒子助演

麻浦桃花洞 桃花劇場 電龍三〇番
三月六日부터晝夜四日間特別公開 料金大一時半七時上映
開館以後初開의大名畵 巨匠에데의 壯大! 妖美! 冒險! 怪奇의四重奏
洞窟의女王 米國第一美人女優헤렌베―카―孃主演
◎洞窟의女王! 題目그대로百萬%의獵奇的興味를끌면서나아가는 古今未曾有의超特作怪奇篇!
RKO라디오超特作全發聲日本版 全世界幾千萬婦女子들을울니는 푸란다―스의犬의映畵化
불상한동무 (푸란다―스의개) 巨匠에드와―드슬노―맨監督作品 少年名優…푸랭키―다아―스君主演 名犬…OP허키君 助演
大都映畵社特作品 現代喜劇 下宿屋의딸 監督…根岸東一郎氏 主演…大岡怪童氏北見禮子孃



1936年型フオードV・8은取扱이가장便코가장安全한車입니다

下記는1936年型포―드V―8의比類업는操作의容易와安全性에關한特長입니다。
센타―샤푸트의新型니―들―로―라―뻐아링
操作이顯著히便한超安全機械式부레―키
作動이容易한구랏치
便한기―야의入換
넓고障害物업는視野
『센타―포이즈』式의달맛
鎔接式鋼鐵車體
車全體에安全硝子는標準裝置
固體의前車軸
堅牢한X型푸레―ㅁ
前後兩車軸의整列를確保하는라지아스롯르
幅이넓은車輪림과大型타이야
橫架式스푸링은路面의安定
重心의低下
取扱容易한V―8엔진

1936年型포―드V―8을 使用하시면 如何히꼽틀꼽틀한山길과村길이라도、또는카부와부레―킹과加速이자진必要한都市의 街路라도하로의事務를맛친運轉者는心身의 疲勞를늣기는일이적게됩니다。本車는運轉手와乘客과의가장安全을保障하고。또通行人其他에對하야危害를加하지안토록保護합니다。

本車의機構的特長으로 實地試驗에合格되지안흔것은하나도업습니다。『임의定評이잇는데다가다시改良한』車입니다。
本車가가장經濟的인것은 오래使用하시는동안에알수가잇습니다。

プオード特約販賣店
イトウ商會 淸津府彌生町六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榮町一ノ四一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瀨町五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大通

失言道議員膺懲 뻬라事件의擴大

關係産組幹部續續檢擧中

出版法의違反이라고

【大邱】 경북(慶北)선출도의원산구훈(山口實三)씨는 제오회경북도회 석상에서 산업조합(産業組合)을 지방의 중소상인을 여지업시 파멸로인도하는것이라고하야 [illegible] 도내각경찰서에서 [illegible] 部)를 억재하야 도내각경찰서에서는 대구를비롯 도라간 각지 산업조합 관계자약십명을 검거하야 목하취조중이라는데 이로말미암아 사태는 점차로 확대되엿다 고한다

龍城産組理事 李相秀
同 組合長 金相坤
乾川産組理事 崔榮斗
同 監事 白綏玄
店村産組評議員 加藤□次
慶州産組監事 白容淳
咸昌産組理事 金漢朔
同 監事 白南軾
大邱産組監事 外數人

盈德近海에서 青魚大豊獲

沿岸一帶의大活況

【盈德】 경북영덕군 동해안에서는 금년에는 청어(鯟魚)의 흉어(凶漁)로 당업자는 물론이오 일반경제에 대타격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본군 영덕어업조합(盈德漁業組合)구내에서는지난삼일까지 오보동(烏保洞)노물동(老勿洞)등삼개소어장에서잡힌 청어가 이백칠십여동이며 세망치(細網)까지합하면 삼백여동에 달한다는바 가격은 틈망치 매급에 팔십오전 세망치매급에 일원식 판매되엿다는바 그가격은 삼만원을 돌파하엿스며 이로인하야 당업자와 부근일대는 근일에드믄풍어로 활기를띄게되엿다 고한다

元山灣內에도 青魚群이襲來

價格이大暴落

【元山】 삼월상순이 밧이나가도록 청어군(青魚群)의 습래가업서서 원산만내의 어업자들은 매우 초려하고잇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수일전부터 원산만내의 신도(新島) 황토도(黃土島)부근에서 청어가 오쾌태 내지 삼십여태가 잡히기 시작하야 불안에 잠겻든 어업자에게 일대작약(雀躍)을 주고잇다 고한다

이와가티 원산만에 청어군이 습래함에따라 강원도 장전(長箭)부근에서도 대풍획을 하얏다는데 이로인하야 지난륙일에는 일태삼사십원이라는 고가를 불으럿든것이 한바리에 오륙십원의 대폭락이 되엿다 고한다 이가티 청어가 잡히엿스나 몰다 원산관내 어시장에서만 풀니고 원산라 어항에서는 풀리지 안어서 원산어항에는 황량한 바람만이 오락가락하고잇다

仁川支局主催의 力技大會延期

—來十三、四兩日로—

【仁川】 력기의장려와 독자위안을목적한 조선의력사 한준호(韓駿鎬)군의 력기대회는 사정상 오는 십삼사량일로 연긔하얏는데 일반에게는 료금삼십전 본보월정독자에한하야 이십전에 할인하리라한다

瑞山初上映의 發聲映畵大會

本報支局後援

【瑞山】 서산향상영화사(瑞山向上映畵社)주최 본사서산지국후원으로 삼월팔일 서산읍내 가설극장에서 전발성영화대회를 개최키로되엿는데 서산에서는 처음보는 발성영화임으로 인긔는 비등하야 미리부터 성황을 예기한다는바 더욱이 발성긔계는 미국 알、씨、에 이를 사용함으로 발성이 완전명료할것이며 관객에 만족을 줄것이라고하는바 조흔긔회를 놋치말고 다수관람하기를 바란다하며 개최요항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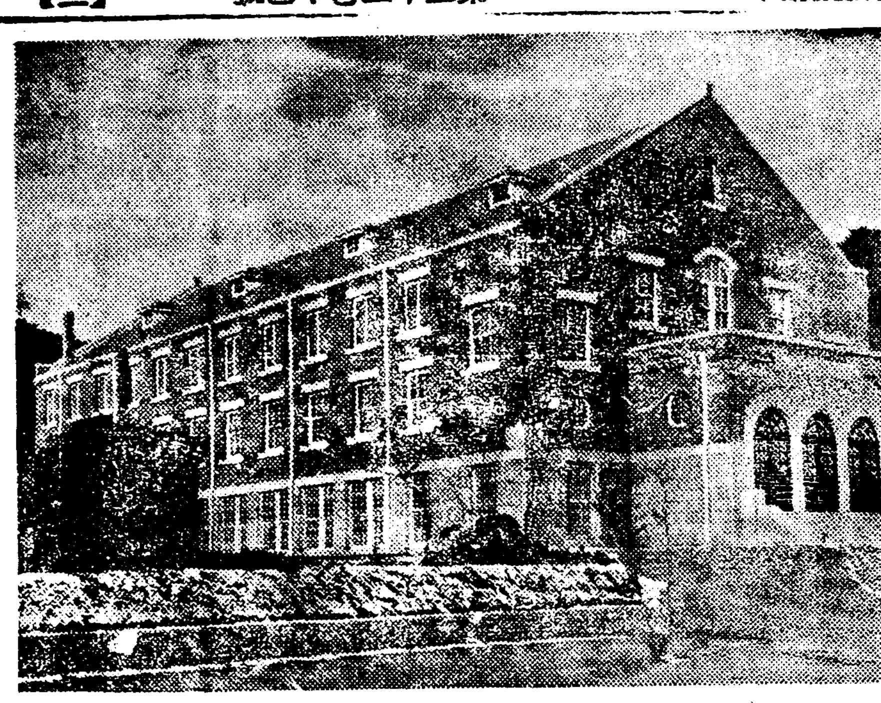
一、映畵 朝鮮語全發聲 아리랑고개 全發聲 爆走하는惡魔 探偵大活劇 非常線
一、時日 三月八日(陰二月十五日)午後八時
一、場所 瑞山邑內假設劇場(島村商店側)

地方人事

▲李鍾涉氏(高敞郡農會技手)棉作係轉職人事次本報高敞支局來訪

酒狂부리다가 畢竟마저죽어

【晋州】 경남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月橫里)에 사는 강마수(姜馬守)와 동면 안계시(安溪市)에 사는 고용운(高龍雲)은 [illegible] 고용운은 [illegible] 오전 [illegible] 경찰서에서는 죽은사람을 해부까지 하엿다고한다 [illegible] 고용운이가 [illegible] 자기가 죽게되엿다 [illegible] 고용운이가 맛게 되엿다한다



◇…新築落成된全州新興校大講堂(昨紙第二面記事參照)

些少한言爭끄테 作人을亂打重傷

五十餘作人蹶起對策講究

東亞勸業農場員의暴行

【奉天】 봉천시에서 약사십리를 격한 심양현제구구(瀋陽縣第九區) 판교자(板橋子)에서 동아권업회사농장(東亞勸業會社農場)의 소작인으로 잇는 오경장(吳慶璋)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자긔가 경작하고잇는 농경지(農耕地)가 너무멀리떠러저잇는관계로 해마다 경작에 불편을늣겨오든바 금번동농장에서 소작지이동전형회의(小作地移動詮衡會議)가 잇섯슴으로 이긔회를 리용하야 전긔오씨는 지난오일오후한시경 동농장원에게 이와가튼사정을 말하고 경작지이동을 간청하여, 동농장에용원(傭員)으로잇는 김주권(金周銓)은 이를거절하고 작년에도이동한바가 잇다는등 사실도업는 말로써 언어도단의 언행을함으로 전긔 오씨는 억울함을참지 못하야 이동해 주지 안엇스면 그만인데 사실이업는허무한말을 한다는말로써 항의하여 서로언쟁을하다가 전긔용원인 김주권은 『석탄부삽』으로 오씨의두부를 두다리고 동농장주임이란 동면(東勉)도 협력하여 무수히란타하야 오씨는두부(頭部)에 구센치와륙센치 이개소의 렬상(裂傷)을 입엇다는바 이소식을 들은 동지소작인오십여명은 분개하야 그날동농장을습격햇스나 가해자김주권은 어데로 피해버리고 전긔동면은 소지한권총까지끄내게되엿는데 급보를 바든 동지파출소에서 현장을 달려가서 이를제지하고 조토록해결해준다고하야 그날은 그대로도라가고 피해자오씨는 곳봉천으로 운반하야 당지만철병원(滿鐵病院)에 수용하고 응급치료중 전치이주간의 진단을 밧게되엇는데 오씨는 가해한 전긔두명을상대로 지난륙일 령사관경찰서(領警)에고소를제긔 하엿다한다

그리고이사건이발생되자 동지소작인들은 이와가튼농장에서 그들의지배를밧고잇다가는 압흐로 어떠한 일이생길는지 알수업는 일이라하야 오십여명이 련명날인(連名捺印)한후 지난칠일 대표김긔두(金起斗)조룡연(趙龍淵)량씨외이명을보내여 당지거류민회(居留民會)와 령사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엿다는데 금후 사건귀결이 매우주목된다 고한다

代表 金起斗氏談 참으로 억울한일입니다 소작인들이라고 너무압박해요 그와가티 무지하고 비인간적행동을하는자들이 압흐로어떠한 불법행동을할는지 알수업는일임으로 그대로둘수는업슴니다 운운

麯子十餘萬枚 腐敗되어損失

【慶州】 영천 경주량군을관할하는 경주곡자조합(慶州曲子組合)에서는 금년에드린『누룩』칠여만장이 부패하엿슴을 발견하고일대소동을 일으켯다는데 지난달십팔일에 림시사여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한결과 썩은십만여매의『누룩』는원인이각지주업자들이 각기 분배하엿다는데 손해는 약삼만여원에 달하고원인은 저장을완전한 까닭이라한다

仁川

慰安讀者韓駿鎬力技大會

▲時日 三月十三十四日로延期
▲場所 公會堂에서
▲會費 三十錢讀者에는二十錢
◇主催 朝鮮日報仁川支局

肺病必治

꼭낫는다!!

無料(內務省(衛生局)認定의結核에關한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療法을가르처드리고 또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흔藥과조흔養生을알러는사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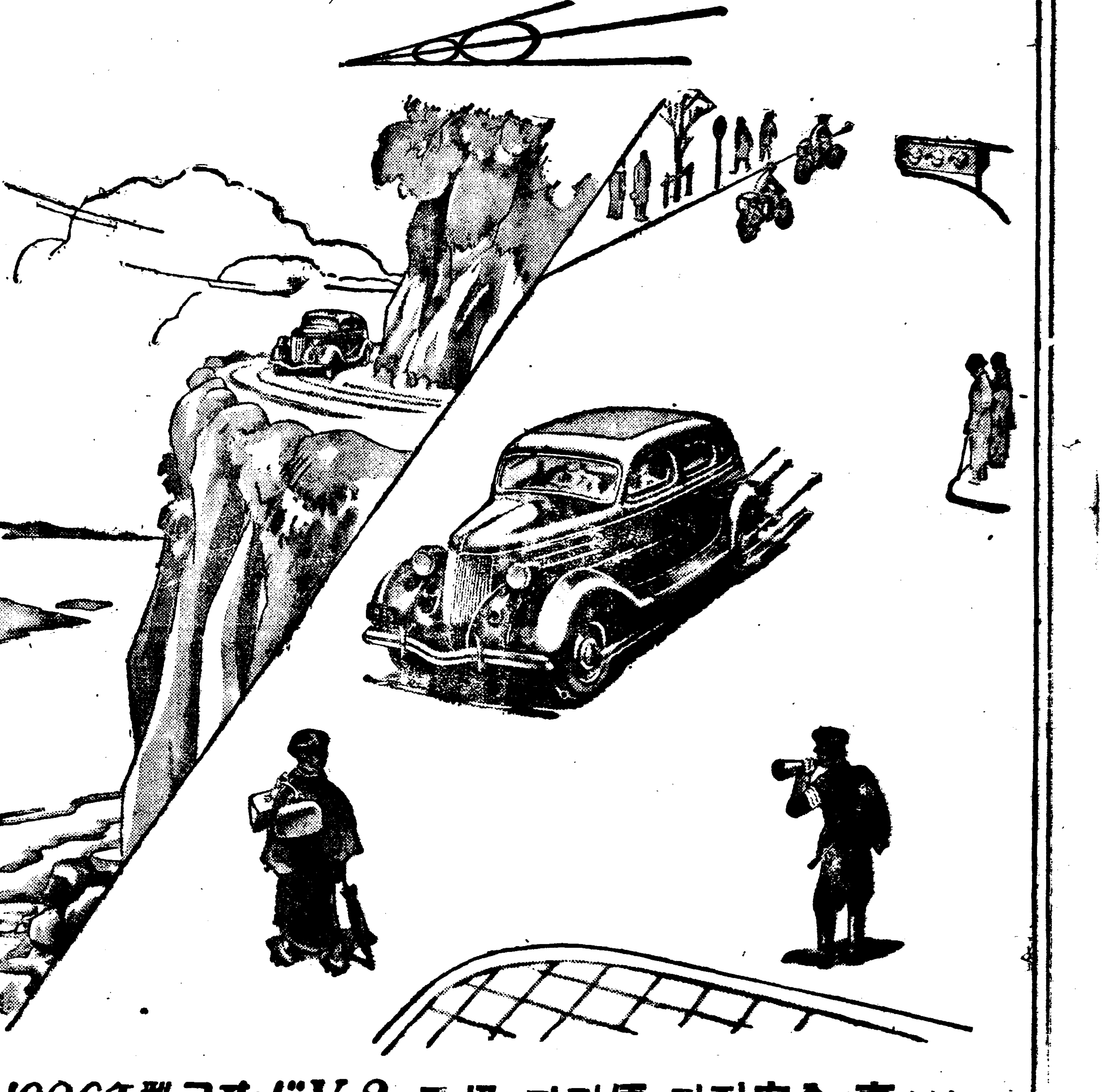
엇더한重症患者라도失望勿爲

身體이나리지안는분 / 기침이끗치지안는분 / 밤에식은땀나는분 / 喘息되는분 / 喀血되는분 / 억개가무거운분
不眠症잇는분 / 每日微熱하는분 / 胃腸이弱한분 / 頭痛나는분 / 倦怠症나는분 / 胸腰痛잇는분 / 關節이잇는분

第三期患者도全快되시요 내가나흔것이무엇보다도證據입니다 數年前에무서운肺病에걸인나는世上에 흔한藥과療法에 莫大한金錢을 無益하게쓰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보앗스나죽엄을기다릴뿐인重病에나는安心하고잇슬수업슴으로全生命을밧치가며모든全快法을研究하엿습니다 研究가헛되지안허 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하든나는드디어二個月後에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될수잇섯습니다 나에게는가장有効한 肺病特効藥其他病잇슬當時의 實驗諸藥의選擇法 갑흔기침곳치는法喀血止血食料品의 選擇法一切의 肺病治療秘訣을一一히懇切叮嚀히無料로누구나에게든지가르처듸립니다 또特殊 患者에게는 特効良藥을無代로듸립니다 이글을보시게되는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하도의藥醫로苦生하시는분은 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 이新聞名(朝鮮日報)을記入하야 一時라도速히肺病全快法無料送付하라고하십시요 이것도數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 奉仕하고잇는사람입니다 것이오니 이모든것을安心하시고 問議하야주십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二三

松島敎正

남자나녀자나 男女とも
독을 밧은갓치 생각되면 毒を受けたと思ならば
독소환을 잡수시라 毒掃丸を召し上れ
기분좃케 체독을 배제합 氣分よく体毒を排泄す
약점에잇슴 薬店にあり
약가 이십전 오십전 일원 이원 代二十錢 五十錢 一円 二円



1936年型フオードV·8은取扱이가장便코가장安全한車입니다

下記는1936年型포-드V-8의比類업는操作의容易와安全性에關한特長입니다。

쎈타-샤푸트의新型나-롤-로-라-베아링
操作이顯著히便한超安全機械式부레-키
作動이容易한구랏치
便한기-야의入換
넓고障害物업는視野
『쎈타-포이즈』式의탈것
鎔接式鋼鐵車體
車全體에安全硝子는標準裝置
固體의前車軸
堅牢한X型푸레-ㅁ
前後兩車軸의整列를確保하는라지아스롯드
幅이넓은車輪림과大型타이야
橫架式스프링은路面의安定
重心의低下
取扱容易한V-8엔진

1936年型포-드V-8을 使用하시면 如何히꼼틀꼼틀한山길과村길이라도。또는카부와부레-킹과加速이자진必要한都市의 街路라도하로의事務를맛친運轉者는心身의 疲勞를늣기는일이적게됩니다。本車는運轉手와乘客과의가장安全을保障하고。또通行人其他에對하야危害를加하지안토록保證합니다。

本車의機構的特長으로 實地試驗에合格되지안흔것은하나도업습니다。『임의定評이잇는데다가다시改良한』車입니다。

本車가가장經濟的인것은 오래使用하시는동안에알수가잇습니다。

フオード特約販賣店

イトウ商會 淸津府彌生町六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榮町一ノ四一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濱町五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大通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賞採取品인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本品은補精肾氣强壯에神秘的靈効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産物을樺太廳에서官賞으로捕獲하야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効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三八二番地ノ三 電話長一二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화왕샴푸

편하게감겨서윤택을더하는洗髮料

花王샴푸-는 때가 잘빠짐으로 헹구기가 簡單하고 短時間에 問題업시 잘감깁니다

花王샴푸-에는 美髮榮養劑가配合되야잇슴으로 머리의潤을더하고優雅하게됩니다

長髮……二回
斷髮……一回

一個·五錢

有力商貨店 藥貨店에잇소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洋劃專門 浪花館

三月四日より三月十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地獄囃子後篇 二·三 六·四〇
め組の喧嘩 三·〇〇 三·五 七·三七
花嫁くらべ 一·九 四·四 八·五六
終演九時五十六分

右太プロ·サウンド版
▲地獄囃子後篇
下加茂吉例春の顏見世
▲め組の喧嘩
長二郞·好太郞·浩吉·榆之助·敏子·久榮外總動員
蒲田トーキー
島津保次郞作品
▲花嫁くらべ
お雛樣より美しい、十一組の花嫁、花婿のオンパレード·桃の節句にふさわしい、この名篇
十一日より、興大者と若夫婦 疾風森の石松

永樂町 中央館 電本三〇五二

六日特別大公開(五日間)
お姫樣道中記
傷だらけのお秋
三日月仁義
大人四十錢學生三十錢小人二十錢
新興キネマ京都時代劇 原作 山內英三 監督 厨子與三
オールサウンド
お姫樣道中記
毛利峰子、松本泰輔、田村邦男主演
新興キネマ東京大泉作品 原作 三好十郞先生 監督 勝浦仙太郞
オールサウンド
傷だらけのお秋
伏見直江、河津清三郞 主演
モリモト映畫社提供 寬プロ超特級時代劇 原作 村上浪六 監督 後藤岱山 說明オールトーキー
三日月仁義
嵐寬壽郞大熱演
ポリドール人氣歌手東海林太郞主演歌吹込

貫鐵洞 優美館 電光三九五

三月八日부터三大名畵封切!
謹告‖始映時刻을變更하엿나이다
第一回 午前十一時브터
第二回 午後三時브터
第三回 午後七時二十分브터
米國바스코드超特作全發聲連鎖篇 第二回
大空의强襲
봅·스틸氏 쁘이·월니암氏 루시-루부라운孃 主演
大空의殺陣속에亂舞하는勇士의氣慨! 痛快! 壯烈! 悲愴!
유社特作全發聲日本版! 무래·롯스氏監督作品
地下街
후이릭부롬스氏 애드월드아놀드氏 메리-가라이루孃 主演
モリモト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むっつり右門 仁念寺奇談
嵐寬壽郞主演
原山桂之助、原駒子助演

麻浦桃花洞 桃花劇場 電龍三〇番

三月六日부터晝夜四日間特別公開
開館以後初聞의大廉價
巨匠메리안시파氏監督作品
壯大·妖美·冒險·怪奇의四重奏
洞窟의女王
米國第一美人女優헤렌·베-카-孃主演
◎洞窟의女王! 題目그대로百萬%의獵奇的興味를들고서나아가는 RKO라듸오超特作 古今未曾有의怪異篇!
全世界幾千萬婦女子들을울니든푸란다-스의大映畵化
불상한동무 (프란다-스의개)
巨匠에드와-드·슬로-맨監督作品
少年名優…프랭키·다-로君 主演
名犬…OP해카君 助演
大都映畵社特作品
現代喜劇 下宿屋의딸
監督…根岸東一郞氏
主演…大岡怪童氏北見禮子孃